

영적 혼란의 시대

사사기 17:1-6, 사도행전 13:4-12

최정웅 목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주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말씀을 심부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나름대로 응답도 받는 것 같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이번에 성막을 재현해 놓았다고 해서 가 보니까 기도원이었다. 거기 보니까 개인 기도굴을 만들어 놓았는데, 혼자 들어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어떤 굴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또 방언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다. 말하자면,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기도를 하다가 틀린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두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한다. 기도가 다 신비주의라는 말이 아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는데, 뭔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응답을 육신적인 축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응답은 사실은 교회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절간에서도 받고, 무당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도 응답은 나름대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다. 그런데 틀린 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무응답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귀신이 주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다. 육신적인 응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게 된다. 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던지지 않나? 그것을 물면 고기가 잡히는 것이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미끼를 주는데, 거기에 걸리면 죽는다. 그와 같은 것이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에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런 문제와 위기로 가득 차 있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 종말 시대가 가까우면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여러 가지 위기가 가득한 이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혼란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1. 이스라엘에 온 영적인 혼란의 모습

(1)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에 온 영적인 혼란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육신적인 응답을 받았다.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것이다.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찾았으니 나름대로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미가가 여호와의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이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전부 우상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살 곳을 찾아다니던 레위인 한 명을 만났는데, 미가가 이 레위인을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데, 레위인이니까, ‘네가 좀 알지 않느냐, 그냥 네가 제사장 해라’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복을 받도록 빌게 만든다. 그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단 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축복하고 보호해 줄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과 그 집에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 집에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레위인 가짜 제사장을 보고, ‘자기들 제사장을 해 달라’고 유향한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나? 한 집의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상을 몰래 들고 단 지파에게 간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미가가 단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왜 훔쳐갔느냐, 내 신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그런 것은 우상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어떻게 했나? ‘어, 여기 있다’ 했잖나? “조용히 돌아가라. 계속 그러면 너와 네 집을 몰살시키겠다.” 우상 찾아가려다가 죽지 말고 돌아가라고 위협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신상을 모시고, 그 레위

사람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살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사기 18장, 19장의 이야기다.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럽지 않은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한 짓거리들인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직분이 모르니까,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게 진짜인가보다 하면서 흠쳐가 버렸다. 영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2) 여러분, 오늘 현장을 보면 딱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국회 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나? 그것을 가지고 채널만 틀면 여기저기서 또 야단이다. 그런 일들을 육신으로 보고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 이 시대에 다가온 것이 영적인 혼란이라는 말이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이것과 바르게 싸워서 복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혼란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조금 더 기도해야 한다. 나는 기독교는 정치와 상관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독일에 가 보니까, 대통령은 목사고, 메르켈 총리는 목사의 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았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모델 될 나라가 독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지금 엉망진창이다.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다. 그러면 또 불교정당 나오고 그럴 것 아닌가.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국회에 한 회기마다 100명 넘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전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정당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76만 표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서 국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세워졌는데도 가서 그런 짓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는 시대인 것이다.

2.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문제

자,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1) 제일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의 문제와 싸워야 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참담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옛 나라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9의 지진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도 당장 심주환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팬잖은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히로시마는 진앙지에서 먼 곳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한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재앙의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 여섯 가지다. 이것이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겪는 영적 싸움을 현장에서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말이다. 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그 싸움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본 문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상숭배 문제,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한다. 당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사업장, 가정,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에스겔 36:37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육신적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막도록 기도해야 한다.

(2) 이 재앙이 오는 원인인 우상과 싸워야 한다. 이 재앙이 왜 오는 것인가? 우상 때문에 온 영적 혼란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①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우상이 한국에 꼭 차 있다.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례 문제, 혼례 문제 속에도 전부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결혼식도 폐백하는 것이 전부 우상숭배 식이다. 기독교식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다음에 폐백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 형식이다. 이것을 모르고 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생각이다, 잘 하라고 했다. 우상숭배하는 문화가 너

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 전 세계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이 꼭 차 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는 우상이 골목마다 자리잡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네팔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나라에는 아예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존이 거의 그런 상태다.

② 이런 형상우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또 뿌리내린 것이 사상우상이다. 좌파가 맞느냐, 우파가 맞느냐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회개하라. '원래 나는 그럽습니다' 하는 소리 하지 마라.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50년 만 가면 한국이 없어져 버린다.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게 되는데, 기문도 다 없어져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인권을 보호해 달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사상우상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우상이다.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섬기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13, 16,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이 문화가 되어 버렸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시장인데, 도지사인데, 구청장인데, 장로님이다. 그런데 민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면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참 답답한 일이다. 본래 성경이 말씀한 말씀을 정말 믿는 것이 맞느냐 의심이 될 정도다.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에는 전부 절간이 들어앉아 있다. 무슨 등산 한 군데를 가려고 해도, 전부 거기에 절간이 있다.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른다. 유럽 가면 등산할 산도 없다. 바다가 있으면 산이 없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없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의 동산인 줄 모른다. 동유럽 같은 곳에서는 한국을 낙원이라 부른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한국에 오면 안 간다고 한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절대 안 간다는 것이다. 장씨, 민씨, 이런 분들이 무슬림 후대들이라는데. (웃음) 성씨를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 왔다가 안 가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연구한 그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곳에 등산 하나 가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하는데, 그게 우상 섬기는 절간에 도움이 되도록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문화화되어버린 것이다. 국가적으로 관광사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돈을 다 대 준다.

④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우상이 온갖 형태의 문화로 들어가면서 후대를 삼키고 있다는 것이다. 명상운동이라 하면서 학교 프로그램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속 문화, 우상 문화가 만화로, 영화로, 노래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사정없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정신을 딱 차려야 한다. 분간을 해야 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빌1:9-10).

⑤ 그러면 이것과 왜 싸워야 하는가? 이 우상운동과 우상 문화를 가만히 놔두면,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0:20에 분명히 말했다.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마가복음 5:1-10처럼 심각한 영적 질병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오늘 우상과 싸우기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줄 믿는다.

(3) 세 번째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이방 나라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이 우상에 빠져 버린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을 막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물질신앙, 기복신앙, 성공신앙이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돈 벌면 된다고 가르친다. 복 받으면 된다고 가르친다. 전부 육신적인 틀린 응답이다.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우상 문화의 흐름을 막을 힘이 하나도 없는 무능한 자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물질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 섬기는 수준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꺾어야 한다. 그래야 이 영적 혼란 시대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예수님 모셨더니,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분별력도 생기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다(시48:14).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합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중심,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해

야 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 영적 혼란 시대를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지금 시대는 영적인 큰 혼란 시대다.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엘리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3단계, 유대교-프리메이슨-뉴 에이지가 만들어놓은 귀신 체형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지금 나와있는 책들이 거의 뉴 에이지 책들이다. 그래서 책도 잘 골라서 봐야 한다. 램넛들은 문화가 되어 버린 형상우상과 사상우상에 빠져서 기준을 놓쳐 버린 시대다. 성도들마저 혼란에 빠져 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뜻도 잘 모르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 있는 요람이다. 구약성경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옛 약속이요, 신약은 '내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약속이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번에 성막에 다녀오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셨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다. 젊어서는 무릎 꿇는 것이 쉬워도, 나이 들면 쉽지가 않다. 여러분도 다리가 굳어져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조금 더 하면 죽겠더라. (웃음)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막 안에 가본 것이 참 잘 한 것 같다. 몇 규빗, 몇 규빗이라 하고 뭘 만들어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글로만 봐서는 모를 것을 가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었다. 성막을 실물로 재현해 놓은 곳이 세계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것이 제일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한다. 120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구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가봤는데 잘 본 것 같다. 하여튼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 잘한 것이다. 절기 때에는 짐승이 회생을 위해서 21만 마리가 죽었다. 그 피가 골짜기에 넘쳐흘렀다. 죄 없는 그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다 지켜보셨지 않은가. '속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문제를 끝내 버려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히9:12)." 여러분, 하나님이 혼란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소유하고, 복음을 정말 누리다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 복음을 모르고 하는 기도, 복음을 모르고 하는 선행은 모두 헛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유효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제자의 근본을 박살내셨다는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만을 정확하게 말해야, 흑암, 혼돈, 공허의 혼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 혼란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영적 혼란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정말 복음만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램넛들에게 복음만 전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얻어도 복음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복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서신사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꿩잡고 없어도 꿩잡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살아도 꿩잡고 죽어도 꿩잡다. 살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주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된다(히11:38).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악한 세상,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멸망의 시대에, 우상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소유하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사랑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다가, 흑암이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